

다산포럼



염재호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

노인을 위한 나라는 있다

때문에 대기업 이미지 광고를 빼고는 노인을 광고만 자리를 지킨다는 것이다.

인생의 마무리가 이처럼 본능적 생존을 위해서만 힘겹게 싸우다가 결국 떠나고 마는 것이라면 우리 삶의 모습이 너무 애처롭다.

가을의 낙엽이 아름다운 자태를 뽐내다가 썩어가는 사리밭의 추위와 함께 모든 것을 결핍하게 스스로 떨거우 산뜻하게 떠날 수는 없을까?

노인들에게 컴퓨터를 가르쳐서 노인들끼리 인터넷 신문물을 만드는 NGO를 시작한 후 배 교수가 있다. 300명 정도의 노인들이 다양한 정보를 검색하고 교환하여 인터넷 신문을 만든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회원 중 80대가 넘는 분도 꽤 많은데, 지난 몇 년간 돌아가신 분이 몇 안 된다는 것이다. 게다가 그분들도 돌아가시기 전 걸어야 한두 주 정도만 병원 신세를 졌다고 한다.

는 것과는 아주 대조적이다. 빠져드는 일거리가 있으면 소위 '구구팔팔 이삼사리'는 덕담도 심현되나 보다.

어린이를 위한 프로그램은 우리 사회에 많다. 어린이날은 물론이고, 유아원도 있고, 놀이동산도 있고, 피아노, 미술학원도 있고, 어린이 TV도 있다.

그러서 최근에는 노인들조차 노인이라는 말 쓰는 것이 싫어서 노인대학, 경로대학을 평생대학이라는 이름으로 바꾸기를 선호한다.

출로서기가 힘든 것은 어린이나 노인이나 마찬가지인데 아직도 사회적 인식은 노인을 어른으로만 생각하고 돌보기를 게을리한다.

이제 노인에 대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은퇴하면 마치 폐기처분된 노동력으로만 생각하는 인식도 획기적으로 바뀌어야 한다.

최근 노년의 삶을 다룬 영화를 몇 편 보게 되었다. 프랑스 영화 '아무르'는 정말 암울했다. 치매에 걸린 부인을 뒷바라지하는 남편의 모습에서 삶의 종착역이 저처럼 힘들면 인생이 너무 비참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요즘 신문광고가 많이 띄워졌다. 남아 있는 광고는 오직 개 지퍼뿐이라고 씁쓸한 농담을 던진다. 건강을 지키기 위한 등산용품, 건강 잃을 것을 대비한 실버건강보험, 건강 잃고 세상 떠날 때를 위한 장례장소 광고가 바로 그것이다.

교통갈림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은 선택 아닌 필수

린이 통학차량을 운전하는 통학차량 운전자가 근무 중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는 일도 있었다.

뒤늦게 정부에서는 어린이 통학차량에 대한 신고를 의무화하고, 차량운전자의 자격요건을 강화하려는 법률안이 국회에 발의되었지만 사전에 어린이 보호의무를 다하지 못한 우리 어른들이 매우 부끄러울 따름이다.

특히 어린이를 최소한 보호해야 할 취지로 지정된 스쿨존이나 횡단보도 내에서 교통사고는 모든 운전자가 먼저 반성을 해야 한다.

광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올해까지 광주에서 발생한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모두 1800건이다.

경찰이 스쿨존 등을 중심으로 집중단속에 나서면서 어린이 교통사고가 해마다 감소하

고의 있다. 하지만, 어린이 교통사고는 한해 평균 수백 건씩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 매우 아쉬운 대목이다.

도로 위를 횡단하는 어린이가 바로 내 자녀, 내 손자라는 생각을 한다면 보행자나 어린이보호구역내의 안전운행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지 않을까.

최근 스쿨존에 대한 도로교통법이 강화되었지만,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요 법규 위반시 범칙금이 올해부터 최고 두 배까지 부과되어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적용되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위반행위 처벌은 주로 속도도와 주·정차 위반에 맞춰졌다.

택시의 경우 제한속도를 40km 초과하면 13만 원, 20~40km 이하 초과하면 10만 원, 20km 이하 초과시에는 7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동력 재생도 필요한 것은 아닌가? 아직도 충분한 능력이 있는데 나이 때문에 생산현장에서 밀려나야 하는 것은 한발에서 보장된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은 아닌가?

이제 초고령화 사회를 걱정만 하지 말고, 노인 노동력을 새로운 창조산업의 동력으로 탈바꿈시켜야 한다. 노인의 날도 만들고, 노인들을 위한 에코(친환경) 신도시도 만들고, 노인들이 다니는 대학도 만들고, 노인들이 파트타임으로 일할 수 있는 노동시장도 만들어야 한다.

젊은이들에게 인기 많은 '1박2일'처럼, 우리에게 친숙한 이순재, 신구, 박근형, 백일섭 등 원로 연기자들이 나오는 '1박2일', '꽃보다 할배'라는 프로그램이 케이블 채널에서 곧 방영된다고 한다.

고령화 사회에 버려진 노인들의 사회로만 보지 말고 노인들의 역량이 발휘될 수 있는 사회로 바뀌어야 한다. 그런 노인을 위한 나라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면 고령화 사회로 고민하는 많은 다른 나라들은 또 다른 한류에 크게 환호할 것이다.



오주 광주시교통문화연수원장

'친구' '해운대' '범죄와의 전쟁'

불구하고 오픈세트장은 폐허가 돼 철거됐다. 광주에서 제작되는 어떠한 영화나 드라마에도 지원이나 협조가 거의 없어 국내의 영화·영상인들 사이에 광주는 영화·영상 불모지로 인식된 지 오래다.

국내는 현재 부산, 서울을 비롯 12개 영상위원회가 한국영상위원회협의회 KFCN(Korea Film Commission Network)에 가입되어 활동하고 있고 그 역할은 서로 다양하다.

최근 각 지역 영상위원회는 단순히 로케이션 지원과 공공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뿐만 아니라 자기 지역에 영화, 영상 제작을 유치하기 위해 제작비 지원, 체계적 지원, 스튜디오 지원, 장비 및 각종 기술지원 등을 아끼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문화예술의 아시아 중심도시를 꿈꾸는 광주의 영상위원회는 지금 어떠한가. 부산보다는 늦은 감이 있지만 2003년 10월, 비영리 민간단체로 등록 후 한국청소년영상제 공동주관, '화려한 휴가' '구미호 외전' 등 제작 지원 실적도 남겼다.

치단체나 관련기관에서의 지원이 전무한 상태에서 광주영상위원회의 정상 가동은 한계가 있었다.

지난 10년 동안 자치단체를 비롯 관련기관의 예산지원은 겨우 몇천 만원에 불과했고, 그것마저도 2005년 지원이 끊겼다.

타도시 영상위원회 운영비 전액이 자치단체 및 관련기관에서 지원되어 지역 영상발전에 중심이 되어서 승승장구하는 현실을 보면 예방으로, 아시아 문화중심도시로서 아시아 영상산업 메카를 목표로 하는 이곳 광주의 위상으로 볼 때 참으로 낮부끄러운 자화상이 일어 아닐 수 없다.

다행히 2011년 이후 현 광주시의 관심과 함께 사)한국영화인총연합회 광주. 전남지회 회원들과 광주영상위원들이 힘을 합쳐 2012년 6월, 사단법인을 설립할 수 있었다.

힘든 여건 속에서도 광주영상위원회의 적극적인 홍보와 활동으로 2013년 현재, 광주에서 촬영을 준비중이거나 확정된 영화나 드라마 문의가 끊이지 않고 있다.

'피끓는 청춘'(박보영 주연, 이연우 감독),

'역린'(현빈 주연, 이재규 감독) 외에도 10여 편에 이르는 영화와 드라마들이 지원과 제작 협조를 기다리고 있다.

그러나 지금의 광주영상위원회의 인력과 재원만으로는 제대로 된 활동을 할 수 없다. 또한 광주 지역은 물론 주변도시의 광역화 된 촬영지 지원이나 협조체제도 시급하다.

특히 타 도시처럼 광주시와 행정관청의 영상위원회 활성화 및 협조의지가 선행되어야 하며, 또한 그에 따른 행정적, 재정적 지원이 반드시 동반되어야 한다.

광주영상위원회가 활성화되고 제 역할을 찾아야만 CGI센터를 비롯 3D나 VFX 등 고가의 장비나 인력, 기술도 함께 성장, 활용할 수 있음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싶다.

늦었지만 다시 시작하는 마음과 각오로 광주가 아시아 최대규모의 영상산업 콘텐츠 생산기지가 될 수 있도록 광주영상위원회 임원과 위원들은 최선을 다 할 것이며 광주 시민과 광주시의 적극적인 지원과 애정 어린 관심도 함께 기대한다.

또한 방방기 가동으로 시원함에 일부 승객들은 버섯이 시내버스 문을 열어 오히려 내부를 덥게 하는 경우도 더러 있는데 방방기 사용시엔 꼭 창문을 닫아야 할 것이다.

▲최임아·광주시 북구 각회동

기고



조일성 (사)한국영화인총연합회 광주전남지회장

시내버스 에어컨 적절히 가동해 에너지 낭비 없애야

시내버스를 자주 이용하는 시민으로 요즘 한창 무더위에 냉방기를 자주 틀어주고 있다.

몇 년 전만 해도 도시철도에만 냉방기가 있었지만 이제는 모든 시내버스에도 작은 에어컨이 설치되어 무더울 때에는 가동시켜 주니 시원하게 목까지 갈 수 있다.

더울 때는 에어컨을 가동하는 것이 당연

하게 하지만 이미 차가운 정도로 느껴지면 버스 기사가 적절히 온도를 조절하든지, 아니면 승객들이 알아서 적정온도로 맞추어야 할 것이다.

에너지가 무한한 것도 아니므로 필요한 만큼은 소비하고 적정선에 이르면 에너지를 절약하는 것을 계도할 필요가 있으리라 본다.

인터넷에서 만나는 광주일보

www.kwangju.co.kr

社說

정부·여당, 번지는 시국선언 똑바로 보라

광주를 비롯한 국내외에서 국가정보원의 대선 개입과 남북 정상회담 기록물 유출사건에 대한 규탄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촛불을 들고 거리로 나섰다.

민주당은 지난달 30일 서울 백범기념관에서 '정치공작 진상규명 및 국정원 개혁'을 촉구하는 장외집회를 가졌다. 또한 광주진보연대와 시민단체, 통합진보당원 3000여 명이 이날 오전 광주역에서 '국정원 헌정유린 규탄 결의대회'를 열었고, 당국의 책임있는 사과와 처벌을 촉구했다.

이번 사태의 요체는 무엇보다 국정원의 정치·선거 개입이 민주주의의 근간을 허무는 국가탄란 행위라는 데 있다. 또한, 경찰 수뇌부가 국정원 사건의 수사를 축소·은폐하려 했다는 것도 민주

주의를 정면 부정하는 일이다. 게다가 국정원은 법을 무시한 채 2007년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을 공개해 대선 개입의 국정조사를 피하기 위한 술수가 아니었냐는 비난마저 받고 있다.

정부와 정치권은 이번 사태의 본질을 드러난만큼 철저하게 진상을 조사해 관련자를 처벌하고 국정원을 개혁해야 한다. 국정원의 대선 개입은 검찰과 경찰 수사에서 거의 사실로 드러난 상황이다.

정치권은 여야가 합의한 국정조사를 서둘러 실시해 진상 규명과 함께 같은 사태가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도록 개혁안을 마련하는데 집중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시국선언과 촛불집회는 더욱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

정부가 국정원 사건의 중대성을 감안, 해당 기관으로 하여금 수사에 적극 협조토록 해야 한다. 국론이 분열되고, 촛불시위가 번지는 사태는 민생은 물론 국가적으로도 도움이 될 수 없다. 국민들이 주시하고 있다.

전남 크루즈시대, 중국관광객 사로잡아야

전남에 본격적인 크루즈 시대가 열리면서 한꺼번에 수천 명의 중국인 관광객들이 찾았다. 중국 관광객들은 전남 지역의 수려한 풍광과 맛깔스러운 남도 음식에 호평을 보냈더니 반가운 일이다.

4000여 명의 관광객들은 지난달 30일 14만급 대형 크루즈선 로열 캐리비안 마리너호를 타고 광양항에 내려 순천정원박물관과 여수세계박람회장, 보성 녹차밭 등을 둘러보았다.

4000여 명의 관광객들은 지난달 30일 14만급 대형 크루즈선 로열 캐리비안 마리너호를 타고 광양항에 내려 순천정원박물관과 여수세계박람회장, 보성 녹차밭 등을 둘러보았다. 관광객들은 먼저 야채 비빔밥이나 불고기 덮밥 등 한국음식에도 후한 점수를 주었다. 기쁨이 많고, 튀기거나 볶는 조리법을 주로 사용하는 중국음식에 비해 재료도 다르고, 담백한 남도음식에 호감을 보였다.

그러나 모든 게 만족스러운 것은 아니었다. 그들이 다녀간 보성 녹차밭은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뛰어난 관광인프라가 필수적이다.

관광인프라지만, 차가 생활화되어 우리보다 훨씬 광활한 차밭 풍경에 익숙한 중국인들에게 새로운 추억거리로 다가가기에는 무리가 있을 수밖에 없다.

여수엑스포장 역시 2년 앞서 개회된 상하이엑스포에 비교해 별 감흥은 주지 못했다. 더욱이 상하이엑스포가 여수보다 더 큰 규모로 다양하게 치러진 탓에 전남의 잊지 못할 볼거리로 새겨지기는 역부족이었을 것이다.

따라서 전남이 지속적으로 많은 중국 관광객을 불러 모으기 위해서는 크게 차별화된 관광인프라가 필수적이다. 이국적인 감흥을 받지 못하면 다시 찾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전남도가 서남해안 관광레저도시(시프록젝트) 건설 같은 대규모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활성화되기까지는 아직 침침산중이다. 전남을 찾는 중국인들을 발전지에 온 것처럼 감동을 주기 위해서는 전남도와 정부, 대기업 차원의 적극적인 배려와 투자가 필수적이다.

無等鼓

심수련 동안 화순에 살 때 아파트 가까이 100~500년 된 느티나무와 광나무이 있었다. 어린 날때는 그 중 큰 나무에 '할아버지 나무', '할머니 나무'라는 이름을 붙이고, 나무 그늘에서 동화책을 보거나 술래잡기를 하곤 했다.

어느 해 봄이 다 가도록 광나무 한 그루에 새잎이 돋지 않자 곧잘 잘려져 버렸다. 몇년 후 화순을 떠나 광주로 이사한 후 이듬해 마을 숲을 지나다 가장 큰 느티나무가 없어진 걸 발견했다.

아이들이 '할아버지 나무'라고 부르던 나무였다. 어찌된 일인지 고사한 후 그루터기마저 파 없앤 자리엔 보도블록이 깔려 있었다.

지난달 초 일본 이와테(岩手)현 리쿠젠타카타(陸前高田)시에서 의미있는 소나무 복원행사가 열렸다. 수령 270여년의 이 소나무는 지난 2011년 3월 동일본 대지진 당시 해안에 있던 7만여 소나무 가운데 유일하게 살아남아 '기적의 소나무'라는 이름을 얻었다.

형을 복원했다. 소나무를 뿌리째 잘라 가지와 줄기를 분리·절단한 뒤 방부처리하고, 속을 비운 뒤 합성수지로 채웠다. 높이 27m의 소나무 영구 보존작업에 들어간 비용은 무려 1억5000만 엔(17억 원)으로 일본 시민들이 십시일반한 기부금으로 조달됐다.

'기적의 소나무'는 쓰나미에 휩쓸려 버려지고 버려져 큰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재기의 희망을 안겨 줬기 때문이다.

옛 전남도청 앞 회화나무가 끝내 고사했다. 지난해 8월 태풍 '볼라벤'의 강풍에 쓰러진 회화나무는 1년여동안의 회생 노력에도 불구하고 올 봄에 새잎을 피우지 못해 광주 시민들의 마음을 안타깝게 했다.

이에 뜻있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도청 앞 회화나무 모임'을 꾸려 죽은 나무를 현장 보존하고, 주변을 생태 소공원으로 만들자며 발벗고 나섰다.

광주 근·현대를 목격히 지켜봤을 회화나무가 어떻게 처리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송기춘 체육부장 song@kwangju.co.kr

Table with 2 columns: 光州日報 and The Kwangju Ilbo. Includes contact info, subscription rates, and editorial board members.